



배우 최시원, 이선빈, 한선화, 정은지가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술꾼도시여자들’ 시즌2 제작발표회에서 밝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티빙

돌아온 ‘술도녀’ “화끈한 우정, 2차 갑니다”

“저희, 2차 갑니다!”

지난해 안방극장을 온통 ‘술’로 적셨던 세 친구가 돌아온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술꾼도시여자들’(술도녀)의 주인공인 한선화, 정은지, 이선빈이다. 시즌1에서 애주가들의 시끌벅적한 일상과 진한 우정을 담아 신드롬급 열풍을 일으킨 이들이 9일부터 시즌2를 공개하며 당시의 인기를 재현하겠다는 각오다.

세 사람은 6일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시청자들도 분명 좋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 원천은 다름 아닌 “찐친(진짜 친구) 케미”이다. 세 사람은 “햇수로 2년째 함께 연기하면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게 됐다”며 “화면에도 우리의 실제 우정이 잘 담겼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 “새 시즌만의 재미 확실해”

극중 동갑내기 친구 사이인 이선빈과

한선화 “유방암 상황에서도 특유의 텐션…재미 자신”

정은지 “카메라 꺼져도 수다꽃…눈빛만 봐도 다 알죠”

이선빈 “최시원씨와 로맨스…술도녀, 좀 성숙해졌죠”

한선화, 정은지는 각각 예능프로그램 작가, 요가강사, 종이접기 유튜버로 등장한다. 시즌1에서 특하면 티격태격해도 위기 앞에서는 뽀뽀 뽀뽀했던 이들은 시즌2에서 유방암에 걸린 한선화를 위해 다 함께 산속으로 수련을 떠난다. 한선화는 “그룹에도 우리의 밝은 ‘텐션’을 잃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실 처음에는 암 투병이라는 극적인 상황에서도 밝은 모습을 유지하는 설정이 걱정됐어요. 그러다 시청자들이 ‘술도녀’만의 유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점에 더욱 집중했죠. 특유의 ‘하이톤’ 목소리를 계속 쓰느라 평소보다 물을 2~3배나 더

마셔야 했지만, 덕분에 피부는 좋아졌답니다. 하하!”

캐릭터의 변화도 돋보인다. 정은지는 “이들 말고 ‘찐친’으로 두고 싶은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난 극중의 내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다”고 말했고, 이선빈은 “보조 작가에서 메인 작가로 승진해 많은 변화를 겪는다”고 털어놓았다.

“시즌1에서는 한선화, 정은지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무수한 감정의 변화들로 인해 친구 사이의 위치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메인 P D 역의 최시원 씨와 그리는 로맨스도 사뭇 달라져요. 일과 사랑에 있어서 모두 변화하는 우리가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 “그래, 이게 바로 우리지!”

정은지는 카메라 밖에서 서로 애드리브를 맞춰보거나 수다를 떠는 순간마다 ‘술도녀’로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시즌2를 경험하면서 배우로서도 새로운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촬영 장소가 모두 바뀌었는데 동료들은 전부 제 앞에 그대로 앉아있는 풍경이 문득 반갑고 몽클할 때가 많았죠. 스스로없이 서로의 애드리브를 받아치면서는 ‘맞아, 이게 우리였지’ 싶더라고요.”

시즌1에서 화려한 ‘욕 배틀’로 수많은 ‘짤’(짧은 동영상)을 생성했던 한선화와 정은지는 “이번에도 짤짤 놀랄 만큼 재미있는 ‘짤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술도녀2’에는 깊은 우정과 성장통, 감동이 있어요. 물론 귀여운 우리들도 있죠. 송년회를 여는 기분으로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블랙핑크, 타임지 선정 ‘올해의 엔터테이너’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22 올해의 엔터테이너’(Entertainer of the Year)로 선정됐다. 블랙핑크는 6일(한국시간) 타임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올 한 해 각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명단 중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K)팝 그룹 중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건 2020년 방탄소년단(BTS) 이후 두 번째다. 타임지는 “블랙핑크는 트렌드는 이끄는 현 시대의 아이콘이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밴드다. 또한 케이팝 그룹 중 올 한해 글로벌 음악 차트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연예뉴스 HOT 3

돈스파이크, 첫 재판서 마약 혐의 모두 인정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김민수·45)가 첫 재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다만 공판을 마친 후 ‘마약 동종전과 3회’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돈스파이크가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BTS소속사, 진 입대 당일 팬들 방문 자제 호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망형 진이 13일 입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대 당일 현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팬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6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진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병교육대 입소식은 다수의 장병 및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라며 “현장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 여러분은 현장 방문을 삼가 달라. 따뜻한 배웅과 격려는 마음으로만 해 달라”고 부탁했다. 1992년생 만 30세인 진은 방탄소년단 멤버 중 처음으로 국방의 의무를 시작한다.

봉준호 감독 신작 ‘미키 17’ 2024년 3월 개봉

봉준호 감독이 할리우드에서 촬영한 신작 ‘미키 17’이 2024년 3월 개봉한다. 워너브러더스는 6일(한국시간) 공식 SNS를 통해 “아카데미 수상 경력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과 로버트 패틴슨 주연 ‘미키 17’, 오직 극장에서”라는 글과 30초 가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알 수 없는 공간에서 눈을 뜬 로버트 패틴슨의 모습이 담겼다. 북미 지역 2024년 3월 29일 개봉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절치부심 넷플릭스, 12월 신작 공개로 대반전 도전

더 과감해진 ‘솔로지옥2’ 13일 공개 새 드라마 ‘더 글로리’는 30일 선포 송혜교·김은숙 작가 재회 벌써 관심



더 글로리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예능 중 유일한 글로벌 흥행작인 ‘솔로지옥’ 시즌2와 한류스타 송혜교와 스타작가 김은숙의 복귀작인 드라마 ‘더 글로리’를 잇따라 내놓는다. 예능은 물론 드라마까지 최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12월 신작들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는 각오다.

● ‘솔로지옥2’…유일한 예능 흥행작의 귀환

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비해 예능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넷플릭스는 올해 예능 투자 확대 등을 예고하며 절치부심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조수미·임재범·박정현 등 정상급 가수들이 나선 음악 예능 ‘데이크 원’이 무관심 속에 국내 차트에서만 최고 순위 9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에 실패했고 지난해 29일 공개한 ‘코리아 넘버원’도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 중이다. 아시아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유재석·이광수의 인기로 힘입어 한국 및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에서 10위권 안에 들었으나 별다른 화제성 없이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3일 공개되는 ‘솔로지옥’ 시즌2에 시선이 집중된다. ‘솔로지옥’은 커플이 되어야만 나갈 수 있는 외판심 ‘지옥도’에서 펼쳐지는 출연진의 데이트를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시즌1로 글로벌 차트 5위에 오르는 등 오리지널 예능 중 유일하게 글로벌 성과를 냈다. 방송인 홍진경, 배우 이다희, 가수 규현, 한해가 진행을 맡는다. 제작진은 더 화끈하고 과감해진 시즌2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 시즌1의 주역인 프리지아를 잇는 제2의 스타 탄생도 기대케 한다.

● ‘더 글로리’…김은숙 작가와 송혜교의 만남

올해 선보인 9편의 드라마 중 흥행작이라 말할 수 있는 작품은 ‘지금 우리 학교

는’, ‘소년심판’, ‘수리남’ 뿐이다. 특히 ‘오징어게임’ 이전까지 비영어권 시리즈 최고 흥행작이었던 스페인 원작을 리메이크해 기대를 모았던 ‘종이의 집’은 후평 속에 IMDb 최하 평점(10점 만점에 5.4점)을 받았다. 나나·전여빈 주연의 ‘글리치’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이후 공개작 중 최저 누적시청시간(744만 시간, 공개 후 28일 기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30일 공개하는 ‘더 글로리’로 반등을 노린다. 배우 송혜교와 김은숙 작가가 KBS ‘태양의 후예’ 이후 재회한다는 점에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년 시절 폭력 피해자였던 송혜교의 처절한 복수를 그리는 드라마로 김 작가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장르물이다. 공개일 발표 영상이 5일 만에 조회수 8만 건을 넘어서는 등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승민 기자 smlee@donga.com

올해 앨범 판매량 8000만장 돌파…역대 최고치 예고

전년 동기보다 약 2000만장 증가
실물 앨범 판매량도 매년 급증세

올 한해 음반 산업이 대성황을 이뤘다. 케이팝의 ‘큰 손’ 방탄소년단이 앤솔로지 앨범 ‘프루프’(295만 장)로 판매량 1위 자리를 지켰고, 뒤를 이어 세븐틴의 ‘페이스 더 선’(237만 장), NCT드림의 ‘글리치 모드’(210만 장), 스트레이키즈의 ‘오디너리’(167만 장),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서스데이 차일드’(165만 장) 등이 나란히 순위

를 차지했다. 이는 모두 상반기에만 집계한 수치들로, 전년대비 34.6% 증가해 3500만 장을 기록했다.

6일 씨클차트(구 가온차트)에 따르면 올해 앨범 판매량은 8000만 장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 동기 대비 약 2000만 장 증가했다. 지난해는 5700만 장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인 케이팝 열풍에 힘입어 실물 앨범 판매량은 매년 급증해 2019년 2509만장, 2020년 4170만장 등 수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하반기 역시 블랙핑크는 정규 2집 ‘본핑크’(240만 장)로 케이팝 걸그룹의 새 역사를 새롭게 썼고, 스트레이키즈도 상반기에 이어 ‘맥시던트’(270만 장)로 또 한 번 ‘대기록’을 달성했다. 아이브도 ‘애프터 라이크’(110만 장)로 가파른 성장세에 힘을 보탰다.

김진우 씨클차트 수석연구위원은 “올 한해 피치컬 앨범은 12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작년 판매량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경우 올해 연간차트 400위 기준 판매량은 약 7000만 장 대 후반 또는 8000만 장을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음반 차트인 한터차트를 운영하는 한터글로벌이 1993년 이후 대

한민국 연간 음반 판매량 ‘톱 10’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이날 한터차트가 국내 가맹점의 실제 판매량을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1993년 연간 음반 판매량 1위는 213만 장이 팔린 서태지와아이들의 2집 ‘하이가’로 집계됐다. 한터글로벌은 “대한민국 공식 첫 200만장 판매량 돌파 앨범”이라고 밝혔다. 당시 서태지와아이들과 경쟁했던 신승훈 3집 ‘널 사랑하니까’는 173만 장, 김종서 2집 ‘PETS DN2’는 134만 장이 팔려나갔다.

2017년부터 5년 연속으로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2020년 무려 723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정민 기자 annjoy@donga.com